

이재명 후보 “차기 정부 ‘국민주권 정부’로 명명하겠다”

전남서 ‘호국벨트’ 유세 마무리
‘국민 통합’ 의지 거듭 강조
“정치 보복 우려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차기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로 명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순천에서 ‘1박 2일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 이틀 차 유세를 갖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모든 국가의 권력과 자원이 제대로 쓰여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정부라고 불렀다. 그리고 다음은 참여정부라 불렀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3당으로 합당해 잠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갔던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문민정부라고 (별칭을) 지었다.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다음 정부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라고 물으며 “그 정부의 상징은 저는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 정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너무 갈갈이 찢어져 있다”며

“세상에 음지가 있고 양자가 있는 것 아닌가. 산이 있어야 골이 있는 것 아닌가. 왼쪽이 있어야 오른쪽이 있고 동쪽이 있어야 서쪽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 삶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통합의 정부,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열린 광양 유세에서 “누가 ‘너 대통령이 되면 누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 괴롭힐 거지, 무서워’라고 하더라”라며 “그들은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제 인생은 짧고, 집권 기간은 더 짧고, 할 일은 산더미인데 사람들을 쫓아다니거나 목표를 정해서 괴롭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게 즐겁지 않다. 정치 보복은 걱정하지 말라고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진영과 지역, 이념 구분 없이 ‘일꾼’을 뽑아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이어진 여수 유세에서 “제가 경상도에 가봤더니 거기도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지방이라 더 어렵고 인구도 줄어 들고 도시에 미래가 없어 걱정에 고민이 많더라”라며 “호남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피해자들 아니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피해자인가 마찬가지로 왜 편을 나눠 우리 국민이 싸우냐”라며 “색깔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나이가 많은 적든, 여성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입구에서 유트브 ‘K-이니셔티브’를 진행하며 볼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남성이든, 편을 갈라 싸우도록 그들이 사주하고 조종해도 결코 넘어가지 말자”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후 DJ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한 목포 평화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전남 부산·경남서부터 이어진 ‘이순신 호국벨트’ 횡단

유세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양·순천·여수·목포 순회유세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햇빛 연금·에너지고속도로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

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살길을 만들자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라며 “5년 안에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고, 시작은 할 수 있을 거다.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근산 기자

국힘 탈당 김상욱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가장 보수다운 후보...적임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에 대항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마찰을 빚다 지난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걸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김문수 “윤 계엄 부적절...진심으로 정중히 사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철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거듭 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민주 “김문수, 광주학살 정호용 영입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인선을 취소한 것을 두고 “광주 학살 책임자 영입을 시도한

김문수 후보는 또 쿠데타를 벌일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목전에 두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 영입하다

니 김 후보는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호용이 누구인가. 신군부 핵심 5인 중 한 명 아닌가”라며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이자 광주 학살을 지휘한 특전사령관이 고 전두환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군사 독재의 망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SINCE 1991

2025 새해에는
건강한 영양습관
그린비아

그린비아 당 케어
국물맛 당노첨가물 0.2% 함유
10g 당 25mg 당분
16곡 분말(국산 0.2%)
200ml(200kcal)

영양 보충을 통한 일상 속의
변함 없는 당뇨 관리
그린비아 당 케어

그린비아 영양 케어
구수한맛 당노첨가물 0.2% 함유
1.8g 당 9mg 당분
200ml(200kcal)

균형 잡힌 영양 습관으로
매일 아침을 든든하게!
그린비아 영양 케어

그린비아 캔서 케어
담백한맛 당노첨가물 0.2% 함유
12.5g 당 500mg 당분
200ml(200kcal)

암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끓고루 갖춘 맞춤영양식
그린비아 캔서 케어

그린비아 모델
배우 임주환/양미경/유선

주 문 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쇼핑 트러스트 www.edaymall.com | 문 의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 동부영업소 (031)592-6907 · 북부영업소 (031)861-3782 · 남부영업소 (031)283-8581 · 서부영업소 (032)514-2315 ● 강원영업소 (033)764-8801 ● 충청영업소 (042)623-8601 ● 전북영업소 (063)214-5731 ● 전남영업소 (062)941-5001 ● 경북영업소 (053)559-3441 ● 경남영업소 (055)231-8581 ● 광주영업소 (054)751-8331 ● 부산영업소 (051)204-8581

-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